10.15686/fkl.2024..61.207 OPEN ACCESS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완본) 연구

-한국전쟁과 반전(反戰) 소설구조, 그리고 '별'과 '광명'의 의미

서정자
초당대학교 교양교직부 명예교수

목차

1 『별들의 고향』 완본 발굴의 의미
2 한국전쟁 체험과 반전(反戰) 소설구조
2.1 반전 소설구조와 아나키즘
2.2 『별들의 고향』의 대중 구현방식
3 『별들의 고향』의 '광명'과 '별'의 의미
3.1 대중과 유리된 이념의 허상
3.2 '별'과 '광명'의 의미
4 결어-'광명'을 품은 '대중'이 곧 '별'이다

국문초록

이 글은 김말봉의 장편『별들의 고향』의 반전소설적 성격을 구명해 본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쟁 초기에 전작으로 쓰인 이 소설은 그동안 낙장과 훼손 등으로 완전하지 못한 텍스트라 알려졌는데 이번에 완본을 구해 볼 수 있게 되었다.『별들의 고향』완본 발굴은 훼손된 텍스트에서 불가능한 '자세히 읽기'가 가능하여 김말봉이 보여준 치밀한 기법, 반전소설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바르뷔스의 반전소설 방식에 유사성을 보인 김말봉은 전쟁 유발자로 남로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쟁 발발 전 2년 반의 시간 동안, 대중의 삶과 현실 속에서 전쟁 유발자의 논리와 행위의 '심각한 모순'을 짚어냈다. 작가는 한국전쟁 유발의 책임을 남로당과 함께 북한, 그리고 소련 등 전체주의에도 물으면서 역사적 자료를 나열하는 대신 대중의 삶에서 실제를 드러내는 것을 그 방법으로 했다. 60여 명이 넘는 인물의 대거 등장은 작가가 '대중'과 '대중의 삶'을 그리고자 동원한 독특한 설정이다. 그동안『별들의 고향』연구에서는 '대중'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전쟁 유발의 지배권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생 초선, 사창 연심, 쥐도 새도 모르게 겉으로는 아무 의식 없이 사는 무식 대중의 한 사람 난주, 양공주 득순, 장미 등을 통해 공창 폐지 법안 실시의 당위성과 이마저 방해하며 협잡을 일삼는 남로당의 암흑면을 보여준다. 두 차례의 탈피를 거쳐 아나키스트적 광명의 길을 찾은 창열과, 달러 장사 피득칠의 숨기었던 영적 힘의 발로 그리고 내부에 숨기었던 영의 해방으로 땅 위의 별이 되는 득순까지 다양한 대중의 삶을 통해 "하나도 볼 데 없는 인물로 하여금 사람들이 침을 뱉는 시궁창에서 뛰쳐나와 참된 빛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민중문예"라고 했듯이 '반전 소설'이란 결국 대중이 '눈을 뜨고' '별'이 되는 소설이다. 대중이 '별'인 것이다.

국문핵심어: 반전(反戰)소설, 김말봉의『별들의 고향』완본, 바르뷔스의 반전소설,『광명』, 클라르테, 대중, 진리, 영혼

1 『별들의 고향』 완본 발굴의 의미

『별들의 고향』[1]은 해방과 한국전쟁 시기에 김말봉이 쓴 반전(反戰)소설[2]이다. 김말봉은 이 『별들의 고향』을 여러 군데에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말했다.[3] 『별들의 고향』에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사는 117쪽 정도이고 이는 전체 418쪽의 4분의 1분량에 지나지 않는다(소설 길이 2백 자 원고지 2,500장. 그중 600장). 김말봉이 말하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이라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한 말일까? 김말봉은 1949년 말 하와이 보배 언니 집에 갔다가[4] 1950년 6월 22일, 한국전쟁 발발 사흘 전에 부산 부두에 도착했으나 안양까지 와서 서울집(해방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이주한 서울 중구 동자동 18-20)으로 들어오지 못해 다시 부산으로 가야 했다.[5] 김말봉의 사위 김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부산에 3개월 피난해 있다가 9.28 수복 이후 서울로 왔으며 1·4후퇴 때 가족이 다 같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고 한다.[6] 요컨대 그의 한국전쟁 체험은 9.28과 1·4후퇴 사이의 서울 3개월과 부산 피난 체험이 모두였다. 그리고 아직 '전시(戰時)'인데 무엇이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별들의 고향』을 쓰게

---

1 김말봉, 『별들의 고향』, 정음사, 1953.

2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관념을 독자에게 주려는 전쟁문학의 일종. 바르뷔스의 전쟁, 폭력의 참화를 그린 장편소설 『포화』 『클라르테(광명)』,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없다』, 독일의 소설가 렌의 『전쟁』 『전후』 등은 이 경향의 대표적 작품. 문덕수 편, 『세계문예대사전』 상, 성문각, 1975, 814쪽.

3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316쪽.
1949년 하와이, 1952년 유럽엘 다녀온 다음, 1955년 5월 6일, 김말봉은 미 국무부 초청으로 3개월 도미 시찰에 나선다.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미국 시찰 후 김말봉은 이어 앤도버신학교에서 특대생으로 1년간 수학하게 된다. 이 시기 1년간의 비용에 도움을 준 곳은 한미재단이었는데 이 재단의 대표 크리슨베리 장군은 처음 만난 김말봉에게 '소설을 한 권 주면 번역해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한다. 두 번 세 번 청하므로 김말봉은 '용기를 내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별들의 고향』을 번역하기로 했다고 쓰고 있다.

4 하와이에 다녀온 날짜는 『자유민보』 1427호(2권) 단기 4283년 6월 24일 자 기사 참조. 1949년 12월 부산 출발, 1950년 6월 22일 부산 도착.

5 조영암, 『한국대표작가전-부(附) 작품연보』, 수문관, 1953, 87쪽.

6 김마태, 『마태 김의 메모아』 지와 사랑, 2012, 89쪽.

했을까. 본고의 결론을 미리 말해 본다면 『별들의 고향』은 한국전쟁을 중심에 놓기보다 '배경으로' 하여 쓰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별들의 고향』 선행연구자의 첫머리에 놓이는 최미진 김정자는 『별들의 고향』은 사회적 멜로드라마를 공식으로 하여 역사적 사회적 사실에 사실성을 부여한 소설이라고 보았고[7], 김경연은 "해방/전쟁기 김말봉의 소설들은 중도적 입장의 아나키스트에서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매춘 여성의 해방을 실천하던 여성운동가에서 공산 진영과 싸우는 문화 전사로, 남녀동등의 낙토를 열망하던 여성 시민에서 가부장적 국가를 승인하는 여성 국민으로 이행해야 하는 그녀(김말봉)의 굴절을 역력히 현상하고 있다."고 하였다.[8] 이병순은 "반공이라는 관제 이데올로기와 공창제 폐지 등 국가정책들이 문학적 매개 없이 재현되는가 하면, 사건의 해법을 상당 부분 종교적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또 선악의 이분법이라는 도덕적 양극화를 작품의 기본 구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나 갈등이 정치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선(先) 규정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9], 진선영은 역사적 사실로서 전체주의(공산주의)와 자유주의(민족주의)를 이항 대립적으로 서사화하면서 반공주의를 당위적 가치로 선언하고 있다고 보았다[10]. 조민형은 도덕적 양극화라는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1950년대라는 시대 맥락 속에서 악을 제거하고 국민들을 탄생시키면서 재신성화를 시도한다고 하였는데[11] (조민형은) 이어 석사논문 「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연구」에서 아나키즘 이론을 심도 있게 정리하고 대중 소설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여성 장로와 아나키스

---

7 최미진·김정자, 「한국전쟁기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연구」,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8 김경연, 「삐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2019, 68호. 214쪽.

9 이병순, 「김말봉의 장편소설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1,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12, 20쪽.

10 진선영, 「한국전쟁기 김말봉소설의 이데올로기연구」, 진선영 편, 『김말봉전집』 6, 소명출판, 2016, 482쪽.

11 조민형, 「냉전기 이분화된 '모럴'과 국민 탄생의 (불)가능성-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연남경 외, 『전후 비평 담론과 여성작가의 재조명』, 역락, 2021, 311-336쪽.

트의 대립되어 보이는 키워드가 김말봉을 중심으로 교차될 수 있음을 아나키즘 이론을 토대로 독해하고 있다. 김말봉 소설연구에 아나키즘 이론 소개 면에서 획기적으로 기여한 논문이다[12]. 이민영은 반공주의 체제를 경계 안에서, 냉전의 문법을 충실하게 따르나 전쟁의 상흔을 통해 반공주의를 역설하는 대신 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 놓인 갈등의 가능성을 그려낸다고 짚었다.[13]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에 대한 평가는 전후 반공주의 소설 또는 냉전 담론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점에서 거의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나는 『별들의 고향』이 한국전쟁 초기에 쓰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별들의 고향』은 아직 반공주의 문학이나 냉전 문학이 본격화하기 전의 소설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앞에 썼듯이 『별들의 고향』을 반전소설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전쟁소설이라고 명명하기에는 전쟁 체험의 무게가 가볍다고 보았다.

김말봉의 소설 『별들의 고향』을 반전 소설이라는 낯선 시각으로 구조분석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별들의 고향』의 완본을 구할 수 있었던 덕택이다. 국내에는 완본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훼손된 저본(底本) 두 종을 갖고 있었으면서도[14] 연구에 나서지 못하고 주저해 왔다. 현재 내가 구한 완본은 미국에 거주하던 작가 김말봉의 장녀 전재금 씨가 소장하던 책이다.[15] 완본 『별들의 고향』 텍

12 조민형, 「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논문개요 ii.

13 이민영, 「전후 여성작가와 열전사회의 반공담론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1953)과 임옥인의 『월남전후』(1956)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2, 국어국문학회, 2023, 169쪽.

14 이 시기는 1955년 9월로서 한국에서는 정부조직법이 정비되는 때로 검열의 전반적인 양상이 현격하게 달라진다. 한태연 서울대 법대 교수의 『헌법학』 판금 조치와 대학 교재 『문화세계의 창조』의 저자 조영식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예로 보듯 학술연구와 교육을 냉전적 반공주의 자장 속으로 편입시키는 검열제도를 극도로 강화하는 시기였다. 『별들의 고향』은 아마도 번역자 교체의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검열 대상에 올라 각 도서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절제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이 아닐까 한다. 『별들의 고향』의 낙장 또는 훼손 부분은 책들에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훼손된 부분은 대체로 이데올로기가 언급된 장면이다. 이봉범, 「1950년대 문화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3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10쪽.

15 어느 날 김말봉 선생의 사위 김마태 씨의 부탁으로 그의 인척이신 김하림 씨가 내 논문에 적힌 김말봉의 전기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만난 자리에서 『별들의 고향』 완본을 찾는다는

스트를 구함으로써 소설의 구조를 부감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완본이 아닌 훼손된 텍스트로 반전 소설구조를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문학 연구의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 '자세히 읽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별들의 고향』이 전작 소설인가 신문연재 소설인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은 데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별들의 고향』은 해방과 한국전쟁 시기에 쓰인 다섯 장편 중 하나로 전작으로 쓰였다.[16] 다섯 장편 중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한 장편이 세 편이고 전작 장편으로 쓰인 것은 두 편이다. 전작으로 쓰인 작품은 『별들의 고향』 과 『꽃과 뱀』[17]이고, 『화려한 지옥-카인

말을 듣고 미국 김말봉 선생의 장녀 전재금 씨 소장본을 미국으로부터 공수해 구해주었다. 전재금 씨는 90세, 2018년에 작고했다. 한편 내가 가진 훼손된 『별들의 고향』 복사본은 충북대 안미영 교수와 대전대 정순진 교수가 무려 20여 년 전에 보내준 것이다. 세 분의 도움으로 이 논문이 가능하게 되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16 조영암, 『한국대표작가전-부(附) 작품연보』, 앞의 책, 88쪽. 『별들의 고향』은 1953년 정음사 출간인데 김말봉과 가까웠던 조영암은 김말봉의 작가전 본문에서 "한편 『별들의 고향』이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왔고"라고 쓰고 부록의 작품 연보에 단행본으로 적고 있다. 이 글에는 『서울신문』 연재 『태양의 권속』 소송사건과 관련한 증언(최독견 소설연재와 관련)도 실려 있다. 『별들의 고향』이 『서울신문』 연재 중 소송사건이 되었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오보이다. 다시 한번 쓰거니와 『서울신문』 연재 중 소송사건이 된 소설은 『태양의 권속』이다.

이봉범도 「1950년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 논문에서 김말봉의 『태양의 권속』(1952.2.1.-7.9)이 139회 만에 게재 중지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고 하고 김말봉이 신문사 측의 일방적인 게재 중지 조치에 불복해 '작품 박해와 명예 손상을 이유로 1천만 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시 상황에서 여론화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처리되고 말았다고 했다. 『반교어문연구』 29, 반교어문학회 2010., 298쪽.

또한 김말봉의 장녀 전재금의 편지를 참조하면 『서울신문』 연재소설가들이 단체 소송한 사건은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이 아니라 『태양의 권속』 필자로 함께한 소송임을 알 수 있다. 뉴욕에서 김마태와 12월 결혼식을 앞둔 전재금이 앤도버신학교에 가 있는 어머니 김말봉에게 쓴 편지에는 "『태양의 권속』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가 피고 측을 불렀는데 유*준씨가 취하하면 어떻(겠)냐고 집에 왔습니다." 라고 소송 취하에 대해 승낙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다고 쓰여있다. (1955년 9월 26일자 편지)

17 김말봉 『꽃과 뱀』은 1949.2.25.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1954년 1월-55년 1월 『바람의 향연』으로 개제하여 『여성계』에 연재되었다. 49년에 단행본 출간이 먼저 되고 54년에 연재가 이루어졌다. 여성계에 연재한 뒤에 나온 단행본은 제목이 『바람의 향연』이고 작가 김말봉 사후인 1962년에 『바람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신화출판사에서 재출간되었다. 『꽃

의 시장』과 『파도에 부치는 노래』, 『태양의 권속』은 각각 『부인신보』, 『희망』지(1951~1952)와 『서울신문』(1952.2~7)에 연재한 작품으로 『화려한 지옥』과 『태양의 권속』은 연재 후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주목해 보면 김말봉은 『태양의 권속』을 일간신문에 연재하면서 『파도에 부치는 노래』를 월간잡지에 연재하는 한편, 동시에 『별들의 고향』 전작 소설을 써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소설을 동시에 일간지 두 군데에 연재하면서도 전작 장편을 연달아 써내는 작가가 김말봉이었음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다.[19] 베니스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예술위원회의 해외 행사 참가는 체재비 외의 비행기 요금 등 '엄청난' 비용을 자비(自費)로 마련해야 했으므로 『태양의 권속』을 마치고(52년 7월), 그리고 전작 『별들의 고향』을 마친 후 두 단행본 출간을 추진해 인세의 도움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20]

『별들의 고향』의 소설적 시간은 정확히 말하자면 1947년 12월 23일부터 1951년 4월 11일까지로 전쟁이 발발하기 전 2년 반여의 시기로부터 전쟁 발발 후 2년까지 4년간을 다룬 특이한 반전 소설이다. 때는 전쟁이 한창인 1950년에서 1952년쯤에 작가는 이 소설을 구상하고 썼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했다면 전쟁 발발 이전인 소설적 시간 2년 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때 작가 김말봉이 반전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들 영이의 전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

과 뱀』은 1957년 문연사 간으로 남아 있는데 초간본의 날짜가 1949년 2.25로 되어 있으나 실물 확인은 하지 못했다. 제목이 선정적이어서 문학 사전 작품 연보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18 이때 『한국매일신문』에 장편 『설계도』를 연재 중이기도 했다. 베니스로 떠나야 해서 30회에서 중단하였고 단편 「출발」도 중단했다고 한다(작품 미확인). 그렇다면 김말봉이 쓰고 있었던 장편소설은 네 편에 이른다. 조영암, 앞의 책, 같은 곳.

19 정하은 편저, 「펄벅과의 인터뷰」,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311-314쪽. 참조.

20 당국에서 환전을 제한하여 비용도 확보할 수 없어 환전 문제가 해결된 뒤에 화급히 출발하여 도착이 하루 지연되었다. 그래서 대표 일행은 22일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23일부터 참석한다. 이 해에 이종하의 딸 이정순이 정하은과 결혼했다. 김말봉의 부군 이종하 씨는 일본에 있었고 병환 중이었다. (김말봉 수필 「멀리 떠나있는 남편」, 『신천지』, 1952.5, 41-45쪽) 1954년 이종하 씨 별세.

른다. 월탄 박종화가 서문[21]에 썼듯이 김말봉의 아들 전영(全瀛)의 전사가 『태양의 권속』 연재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에 전해졌다고 한다. 김말봉은 22세의 아들 영이가 한국전쟁의 최전선에서 전사한 충격을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베니스에서 열린 유네스코 예술위원회의 연설에서[22] 언급했고, 수필로도 썼고[23] 소설 『태양의 권속』에서 주인공 상칠이, 취중에 〈전우야 잘 자거라〉라는 노래를 되풀이 부르게 했다.[24] 이 중에 유네스코 예술위원회의 참가기 「자유예술인의 전결(傳結)」은 『별들의 고향』을 쓰던 중이거나 탈고한 뒤 쓰인 글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말봉은 유네스코 예술위원회에서 영국시인 스티븐 스펜더를 만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문학부 회장은 영국의 시인 스티븐 스펜더 씨로서 그는 세련된 사교와 풍부한 교양의 주인이었다. (…) 나는 이번에 스티븐 스펜더 씨를 만나 본 것만으로서 나의 구라파 행의 수확이라고 하여도 좋다. 산 예인(藝人)이 있다면 이러한 사나이를 지적할 것이다. 그는 한 때 공산 진영의 시인이었으나 중간에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고 단연코 민주 진영으로 돌아선 사람이다. 한 말로써 그를 설명한다면 약하고 방황하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다." 김말봉은 이렇듯 스티븐 스펜더(Spender, Stephen Harold)와의 만남을 크게 부각하고 있는데 스티븐 스펜더 그는 전쟁문학에도 관심이 있는 듯하며 혹은 아나키스트였나 하는 짐작도 해본다.[25] 스티븐 스펜더에 대한 소개에서 그의 사상적 굴곡과 변화에 보인 김말봉의 관심은 그의 사상과 스티븐의 것을 겹쳐 보게 한다. 김말봉은 연설문에서 군에 입대한 지 석 달에 전사하고 만 아들 영이의 이야기에 이어 "우리 코리아는 지금 민주 진영의 일선에서 문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다.……전선으로 가는 우리의 아들과 남편에게는 인류의 참된 평화는 민주 진영에서 온다는 것이 신앙화 되어있다…" 아나키스트 김말

21 김말봉, 『태양의 권속』 박종화 序, 삼신출판사, 1953.6.

22 김말봉, 「자유예술 인의 전결-유네스코 대회에 다녀온 이야기」, 『신태양』 1953.1. 구명숙 외 『한국전쟁기 여성 수필 선집』, 역락, 2012, 73-77쪽.

23 김말봉, 「내 아들 영이」, 『문예』 17호, 1953.9, 176-178쪽.

24 김말봉, 『태양의 권속』, 박종화 서문, 앞의 책, 44-45쪽.

25 스티븐 스펜더, 최용미 옮김, 「D. H. 로렌스, 영국, 그리고 전쟁」, 김재용 엮음, 『탈 유럽의 세계문학론-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문학의 지각변동』 글누림, 2020, 89-105쪽.

봉도 일제 말과 해방기와 한국전쟁기를 겪어오면서 공산주의의 '심각한' 모순을 발견하고 '단연코' 민주 진영으로 돌아섰던 것일까. 김말봉은 그의 소설에서 등단작 「망명녀」(1932)를 제외하고 좌익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주의자'는 부정적 인물로 배치하는 경우(『밀림』의 조창수 박영수, 정평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았으나 김경연에 의하면 주인공 동섭이 사회주의자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 동지를 배신하는 민족에 대해 한탄하는 것이라는 지적은[26] 바른 지적이라고 수긍한다. 그렇기에 이 좌익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소설의 시종을 꿰뚫고 있는 『별들의 고향』이란 김말봉 소설에서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민형[27]은 김말봉의 1949년 3월 『신여원』에 발표한 단편 「낙엽과 함께」[28]가 김말봉의 아나키스트 공산주의 의식의 일단이 표현된 작품이라고 하나 1950년 한국전쟁과 1951년 여름 아들 영이가 전사한 충격으로 그의 사상은 민주 진영 즉 우익으로 확고히 전향했는지도 모른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반공주의라는 고식적인 소설 쓰기에 머물지 않고 바르뷔스 형의 반전소설을 구사했다는 점은 김말봉다운 참신한 시도라고 본다. 내가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과 바르뷔스 소설 『광명』을 겹쳐 읽게 된 것은 황해도 출신 소설가 최태응의 평문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경향신문』에 김말봉의 단편 「성좌는 부른다」를 읽고 쓴 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 "그는 창에 기대서서 밤하늘을 바라다보았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가루들의 하나하나가 찬란히 빛나고 그 하나하나의 별들이 모두 제자리에 박혀서 즐겁게 깜짝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충돌이라는 것이 없다.
>
> 땅 위에도 진실로 눈 뜨는 날이 온다면 그와 같아질 것이다. 좀 더 지내면 그 참된 행복의 날이 오리라. 아니 그날을 반드시 오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진실로 눈 뜨기를 힘써 모든 사람을 불

26 김경연, 「삐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 앞의 글, 179쪽.

27 조민형, 「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72쪽.

28 구명숙 외 편, 『해방기 여성단편소설 Ⅰ』, 역락, 2011, 114-128쪽.

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바르뷔스의 『광명』이라는 소설 가운데 있는 말이다. 오래간만에 김말봉 씨의 작품 「성좌는 부른다」를 읽고 나는 불현듯 바르뷔스의 『광명』의 구절이 떠 올랐다.(밑줄 필자) [29]

최태응은 이어서 『광명』이 평화주의의 소산이요 참된 민중 문예이며 이는 민중 속에 숨기어있는 영(靈)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30] 최태응의 글은 전 세계지식인의 관심을 끌었던 바르뷔스의 소설 『광명(클라르테)』이 당시 문인지망이라면, 그리고 대중 지향의 작가라면 반드시 읽은 소설로 믿고 인용하고 있다. 『별들의 고향』 제목에 별이 들어가듯이 제목에 성좌 곧 별이 등장하는 「성좌는 부른다」[31]는 해방 후 김말봉이 본격적으로 쓴 첫 단편이다. 이 시기에 쓴 단편은 「낙엽과 함께」, 「합장」 등이 있고 중편 「이십일 간」이 새로 발굴되어있다.[32] 「성좌는 부른다」는 제목에 ‘별’이 등장하고 있고 이 ‘별’의 사상은 중편 「이십일 간」에도 나온다.

아들을 전쟁에서 잃어야 했던 김말봉은 ‘반전’ 의식을 절실하게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앙리 바르뷔스의 소설 『광명』을 소환했을 것이다. 『별들의 고향』 결말에서 창열의 약혼자이자 신학교 학생인 국군 간호장교 김영숙은 남북통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할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울해진다. 창열이는 “저 하늘에

---

29 최태응, 「최근의 여류작품 김 장 임 삼씨의 근작에 대하여」, 『경향신문』 1949.4.20. 앙리 바르뷔스, 손석린 역, 『광명』, 을유문화사, 1969. 소설 『광명』을 보면 위의 대목과 똑같은 문장은 없으나 단 내용은 위의 인용과 같다. 『광명』은 세계성으로 하여 다양한 버전의 책이 있었을 수 있겠다.

30 최태응, 위의 글, “『광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르뷔스의 소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이며 세계적으로 문제를(원문대로) 일으킨 작품이었다. (…) 여러 나라의 평론가들이 찬양한 것과 같이 『광명』이 평화주의 문예의 소산이요, 동시에 참된 민중문예—민중을 위한다거나 교훈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 숨어서 혹은 숨겨져 있는 영(靈)의 해방을 의미하는—였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김말봉 씨의 소설을 읽고 나서 내가 그것을 연상했다는 뜻은 짐작될 줄 안다.”

31 김말봉, 단편 「성좌는 부른다」, 『연합신문』, 1949.1.23.-29. 6회 연재.

32 김말봉, 「이십 일간」,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 서사 모음』, 소명출판, 2018, 48-150쪽.

피어나는 별 하나하나가 다 어떤 사람의 혼령이라면 6.25 후부터 확실히 별들은 더 많이 생겨났을 꺼야."라고 한다. "별들이 만약 마음이 있다면 자기들의 고향을 생각할까요?" 영숙이가 묻고, 박영주는 "별들은 부릅니다. 땅 위에 있는 별들을 부르고 있어요. 친구여, 하고 별들은 소리칩니다. 어둠이 사면을 삼키는 우리 고향을 친구야 너와 나만은 태양이 떠올 동안 비록 적은 광명이라도 한데 모아 어두운 고향에 비춰보자"라고 한다. 결말에 등장하는 '별'과 '광명'은 이 소설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이다. 작가는 어두운 고향을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별들의 고향을 만들고자 반전 소설을 쓴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바르뷔스는 전쟁소설『포화』로 공쿠르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어서 쓴『광명(클라르테)』(1919)는 반전 소설이자 대중이 주인공인 소설이다. 김말봉은 청년기에 신문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전상범 이종하 등과 아나키스트가 되었는데[33] 클라르테 운동에 대한 글도 분명 읽었을 듯하다. 세계적으로 휩쓴 사상이 세계개조론인 때문이며 김기진이『개벽』에 바르뷔스의 사상을 소개한「상티망탈 프로므나드」, 바르뷔스와 로맹롤랑의 쟁론 번역 등을 실어 문단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34] 이 글은 일본의 고마키 오미가『씨뿌리는

33 서정자,「김말봉의『밀림』재론」,『여성문학연구』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제1장 김말봉의 신문화운동 참조.

34 박영희는『문단측면사』에서 팔봉이 앙리 바르뷔스의 문학론에서 배운 바가 많았다고 쓰고 팔봉의 소설「붉은 쥐」가 바르뷔스의 소설『지옥』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소설「생」도 바르뷔스의 영향으로 쓰였다고 했으며, 이외에도 김태준의『조선소설사』, 임화의『조선 신문학사 서설』등에서 팔봉의 클라르테 소개를 언급했다. 권보드래,「김기진의 클라르테 번역과 한국문학의 레닌적 계기」,『사이(間)』37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2쪽. 요약하여 재인용.
김기진,「상티망탈 프로므나드」,『개벽』37호, 1923.7, 홍정선 편,『김팔봉문학전집』제1권, 문학과 지성사, 1989, 409-426쪽.
김기진,「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바르뷔스 로맹롤랑 쟁론Ⅰ」,『개벽』, 1923.9,『전집』, 위의 책, 427-441쪽.
김기진,「바르뷔스 로맹롤랑 쟁론Ⅱ」,『개벽』40호, 1923.10,『전집』, 위의 책, 442-469쪽.
김기진,「또 다시 클라르테에 대해서-바르뷔스 연구의 일편」,『개벽』41호, 1923.11,『전집』, 위의 책, 470-473쪽.

사람』에 실은 번역을 김기진이 중역하였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35] 한편 일본에서 클라르테 운동을 전하기 위해 1921년『씨뿌리는 사람』잡지를 냈던 고마키 오미가 바르뷔스의 소설『클라르테』를 번역 소개하는 시기(1922)에 김말봉은 일본 도쿄 송영여고에 유학 중이었으므로 실시간으로 이를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에서 10년을 머문 코마키 오미가 일본으로 돌아와 번역한『클라르테』가 일본 지식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는『바르뷔스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소책자를 쓰기도 했고 무엇보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2년도에도『지식인에게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바르뷔스의 선언과 연설, 그리고 글을 모은 편역서가 나오기도 했다.[36] 이는 그때까지도 바르뷔스의 반전론이 살아있었다는 뜻이자 한국전쟁기의 작가에게 반전사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듯 김말봉이 바르뷔스의 반전소설『클라르테』를 떠올리고 반전소설을 구상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김말봉이 바르뷔스의 영향으로 반전소설을 썼다는 분명한 준거는 없으므로 김말봉의『별들의 고향』을 바르뷔스의 반전소설과 겹쳐 읽어보기로 한다.

2 한국전쟁 체험과 반전(反戰) 소설구조

2.1 반전 소설구조와 아나키즘

앙리 바르뷔스는『광명』과『포화』등 전쟁소설을 여러 편 썼으며 소설『광명』은 대중의 시각에서 그린 반전(反戰)의식과 전쟁을 일으킨 권력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점철되어있다. 소설『광명』(클라르테)은 1919년에 쓰인 것으로 바르뷔스는 이 작품으로 클라르테 운동에 나섰으며 잡지『클라르테』를 발행하고 앙리 바르뷔스, 로맹 롤랑을 비롯해 플라스코 이바네스, 조르쥬 브란데스, 아나톨 프랑스, 엘렌 케이, 업튼 싱클레어, H G 웰스, 스테판 스와잉그, 조르쥐 뒤아멜, 요셉 장그빌 등 세계의 유명한 작가, 지식인들이 이에 공명했다.[37] 동아시아는 물론 유

35 권보드래, 위의 논문, 212쪽.

36 이원동,「한국프로문학의 형성과 클라르테 운동의 수용」,『국어국문학』172, 국어국문학회, 2015, 360쪽.

37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적인 호응 및 반향 현상에 대해서는 권보드래의 앞의 논문 6-8쪽 참

럽과 남미 북미까지 클라르테 운동의 영향권이 늘어났는데 소설『광명』은 작가 자신의 사상을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나'라는 일인칭 화자를 통해 '나'의 내적 성장과 변화를 관찰자 시점으로 썼다. 주인공인 '나' 시몽 뿔랭[38]은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조직 계급제도 속에서 아주 평범하게 생활하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와 주변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그러다가 제1차 대전이 터지고 동원령이 내려 '나'는 징집되어 나간다. 이 전쟁 속에서 그의 눈에 띈 것은 첫째, 대중이다. 대중에 대한 사색이 소설의 중심을 이룬다.[39](이하 괄호 숫자는 소설『광명』의 쪽수) 주인공은 자기를 포함하여 대중의 아무도 자신들의 몸뚱이를 그들(전쟁을 일으킨 지배자 또는 지배계급)에게 맡기지 않았다(417)는 것을 깨닫는다. 그에 의하면 군중은 무력하다. 전쟁은 대중이(맡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대중과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다. 참호를 파거나 명령을 따라 달려갈 때 왜, 어디로 달리는지 모른 채 그저 달려야 한다. '나'는 전쟁의 무의미를 뼛속까지 느낀다.(428-9) 둘째, 전쟁을 결정한 지배층(왕, 교회의 승정 등 권력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절대자의 권력을 부정하고 국민에 의한 통치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르뷔스 반전사상의 혁명성이다. 군대 생활-그것은 절대 권력자에 의한 신체의 징발이며 자기 상실이었다 (418-9). 이러한 의식은 셋째, 기성관념에 대한 배격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용인해 오던 도덕과 종교와 그 외 수많은 질서는 오로지 절대자를 위한 것이고, 절대자의 틀에 넣어 변조되어 온 민중의 의사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말았다는 것을 느낀다. [40]

바르뷔스는 대중이란 갖은 고초와 노동의 시련을 겪고도 결코 곤란이라는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은 노동자이자 현대의 노예라고 말한다(418). '나'는 불

조. 본고에 쓴 지식인 명단은 김기진의 「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에서 인용.『김팔봉문학전집』제1권, 문학과 지성사, 1989, 431쪽.

38 프랑스어본을 읽은 권보드래는 주인공 이름을 폴 모랑이라고 쓰고 있으나 앙리 바르뷔스, 손석린 역『광명』, 을유문화사 책에는 시몽 뿔랭이라고 되어 있다. 을유문화사 소설 표기를 따른다.

39 앙리 바르뷔스,『광명』, 위의 책, 337쪽.

40 앙리 바르뷔스, 위의 책 해설.

행한 민중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428). '국민에 의한 지배'가 오기 전에는 지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421).

『별들의 고향』은 우선 남로당으로 지칭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추수하는 그룹과 일반 대중의 삶이 대립, 대조를 이루는 구조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정부수립이 등장함으로써 『별들의 고향』을 항용 국가 만들기 또는 국민 만들기의 소설로 보지만 5.10 선거 후 정부수립을 선포하는 소식은 소설에서 실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 철호가 밖으로 나가서 나흘째 돌아오지 않는 어느 날 정오, 득순은 라디오에서 쏟아져 나오는 만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 "대한민국 만세"
>
> "이 대통령 만세"
>
> 일천구백사십팔 년 팔 월 십오 일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축복의 소리였다. 민중은 새로운 감격과 희망에 싸여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던 "대한민국 만세!"를 고창하는 것이었다.[41]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이 몇 줄의 묘사를 끝으로 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감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득순은 치마 두 개와 '두루막' 한 개를 보에 싸서 들고 밖으로 나왔다. 자유시장에 가서 돈과 바꾸어 와야 한다. 쌀이 떨어진 까닭이다. 철호가 집을 나간 지 여드레째 되는 날 아침, 집주인 안생원이 찾아왔다. "이사는 언제 나가시렵니까?" 자다가(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놀란 득순은 홍철호가 전세금을 다 찾아가면서 한 열흘 후에 집을 비우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듣는다. 득순과 홍철호가 살림을 차려 든 집은 본시 득순 자신의 소유였던 신당동 적산집 권리금으로 얻은 것이다. 자기와는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전셋돈을 찾아갔다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42] 약자의 권리니, 착취 받는 사람의 이

41 김말봉, 『별들의 고향』, 정음사, 1953, 244쪽.

42 위의 책, 245쪽.

익이니 떠들던 남로당원 홍철호가 양공주 생활로 모은 릴리 득순의 피맺힌 돈을 착취해 달아난 것이다. 돈만이 아니다. 득순의 삶도 유린당했다. 홍철호는 득순의 돈을 갈취해서 '장미'에게로 간다. 장미도 양공주로 생활하는 처지다. 그뿐만이 아니다. 홍철호는 사창 난주의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마작의 판돈을 울거낸다. 아침도 못 먹은 득순을 구한 것은 마침 지나가던 짚에서 손을 내민 토미였다.

남로당의 두목 격인 백웅이 민중을 "노동자 농민 허다한 약소 민족의 용사"라고 부르짖고, 송난은 "기생 갈보 창기 모든 짓밟힌 여인"을 자신의 계급으로 부르듯 이들의 대중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말봉은 1958년 「대중문학」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가 처음으로 피력한 대중의 정의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국한하여 지칭하고 있지 않다. "대중은 문자 그대로 수많은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43] 아나키즘의 대중은 부르주아 지식인 노동자 장인 러시아의 왕자 카탈루냐의 농민 등 어떤 사회의 환경에서도 나올 수 있다. 특정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44] 게다가 백웅이나 송난이 지칭한 민중 계급 득순에게 남로당원 홍철호가 보이는 행태는 거리낌 없이 대중을 억압 착취하는 모습이다. 김말봉은 전쟁을 격발한 좌익 이데올로기의 남로당을 바르뷔스의 권력 내지 지배층과 동일시 하고 대중은 그들의 부당한 권력을 견뎌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반전의식이다. 그의 소설에서 등단작 「망명녀」(1932)를 제외하고 좌익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주의자'는 부정적 인물로 배치하는 경우라고 보아 왔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45] 주의자를 배신하는 민족을, 인물을 비판했을 뿐임에 비하여 이 좌익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전쟁 유발자로 단죄하며 악의 축으로 소설의 시종을 꿰뚫고 있는 경우란 그의 소설에서 『별들의 고향』이 처음이다. 이론 보다도 현장의 고발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모순을 보이고자 작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2년이라는 소설적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듯 『별들의 고향』은 바르뷔스의 반전소설에서 지적한 전쟁을 결정하고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지배층으로 남로당을 지목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비

43 김말봉, 「대중문학」, 『경향신문』, 1958.3.5., 1면.

44 출전을 잊어 각주를 달지 못함.

45 각주 21번 참조.

밀독서회를 지도하는 적철을 “북한 김일성의 직계명령을 받고 남한 일대에다 붉은 사상을 침투시키는 영광스런 사명을 가졌다고 자부도 하고 감격도 하는”[46] 인물로 쓰고 있다. 그런 남로당의 중심인물 백웅과 적철 등은 비밀독서회로 젊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상을 주입하며 야체이카를 통해 지하운동을 획책한다. 또한 세력을 넓혀 해방기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법과 파괴를 자행한다. 경찰학교 국진이 수상하게 여긴 경찰학교 학생 김만추에게서 대공장 파업을 획책하는 지령서를 찾아 취조하여 그 음모를 미연에 방지한 프락치 사건이 있다. 5.10 선거의 방해 공작 그리고 오덕수에게서 갈취한 돈을 적철 등이 남로당에 입금함으로써 송난의 생일 초대에 갔다가 그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송난의 외삼촌 포주 오덕수가 있다. 결국 그는 그로 하여 봉변을 당한다. 소설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으로 북한과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한 소련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지도자 이대통령은 위에 인용된 것처럼 이대통령이라는 단어로 한 번 등장할 뿐 결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전쟁 중에 적군으로부터 ‘괴뢰 정부 이승만’이라고 단 한 번 불릴 뿐이다.

대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이름이 언급된다. 국민이 선출한 인물이 아닌 경우 p나 k 등 약호로 불린다. 예컨대 애국부인회 부회장인 경진의 어머니는 P여사, 곽봉섭의 부인은 K여사이고 모윤숙으로 짐작되는 인물은 적철 등이 부르는 대로 M여로 기록하고 있다. 미국 여선교사 E 부인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적철 홍철호 등이 쏜 권총에 맞아 희생되는 언더우드 여사만 이름이 나온다. 한편 납치당한 인물도 나사렛 신학교 마리아신학교 총장 S박사, R박사, P여사가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국회의원은 유태명 씨라고 이름을 밝혀 적고 있으며 또 국회의원이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영숙의 아버지는 어르신네로 적혀있다. 허다한 정치인 예술가 사회사업가 등 유명인도 황씨, 유씨, 등 성씨만 붙이고 이름은 적지 않는다. 통치자는 국민에 의해 뽑아야 한다는 바르뷔스의 민주주의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 소설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나 언급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임정의 주석 김구 씨’와 ‘임정거두 김 박사’이다. 독립운동가 김구 씨와 김(규식) 박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과 동격의 인물로 쓴 것이다. 이름 표기에서 이처럼

46 김말봉, 『별들의 고향』, 앞의 책, 110쪽.

구별하여 적은 작가 김말봉의 치밀함을 본다. 이는 그의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열과 송난의 만남도 공산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설정한 장면이자 장치이다. 연애 서사로 보이지만 이들의 만남은 우익과 좌익의 논리적 대결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47] 공산주의 세력의 모순, 전체주의 소련의 자유 없는 삶을 지적하는 창열의 태도가 확고부동하므로 송난은 창열의 논리에 일차 승복한다. 송난은 창열을 자신의 논리로 '전취'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창열을 사랑하기에 창열에게 위장 승복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송난이 창열에게 겉으로나마 승복했던 것은 창열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송난 자신이 좌익 이데올로기에서 무엇을 취하고자 했던 것인지 분명히 의식하고 있지 못했던 탓이다. 이어 열린 전국학생회 웅변부장 창열이 주최하는 전국학생웅변대회에 '창열이가' 주최하기 때문에 죽실과 함께 참석했으나 (이때 홍철호가 자루에 담은 뱀을 대회장에 풀어 놓아 한바탕 소동이 난다.) 출연자가 기생의 딸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조롱하자 봉희나 죽실이까지 동조함에 분개, 창열에게 절교 통지를 보내고 자계급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송난은 아버지의 장례에서 당한 수모와 상처를 극복하겠다던 목적을 5.10 선거 방해 수류탄 투척에 걸었으나 죽실은 수류탄 단추도 벗기지 않고 던져 불발탄이 되고, 송난이 던진 수류탄도 투표함이 실린 트럭이 아니라 어느 집 장독대에 떨어져 간장 된장 고추장 단지만 으깨어 놓는다. 그의 어머니와 자신을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끝나고 운동가 송난은 창열과 영숙에 대한 질투심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전쟁이 나자 데려다 고문을 가하지만 이미 한 초라한 무식 대중에 불과하게 된다. 시류를 좇아 남로당의 노선을 좇고 있었던 셈이어서 그의 삶은 감옥으로, 적철에게로, 양공주로 추락을 거듭, '쥐도 새도 모르게 겉으로는 아무 의식 없이 사는 무식 대중의 한 사람 난주와 같은 여자가 되어' 밀항의 길에 태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죽고 만다. 계급해방이 여성해방이라는 사회주의 여성해방 사상을 신념으로 지니지도 못했으며 송난을 유혹하기 위한 적철의 사회주의 정조론 강의를 들었을 뿐이다.

---

47 최미진·김정자도 창열의 연애 서사는 '위장된 이념 서사'라고 보았다(최미진·김정자, 앞의 논문, 202쪽).

> “정조라는 것은 봉건사상의 신봉자들이 만들어 낸 한 가지의 미신입니다. 그들은 정조라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허다한 여성을 철사줄로 결박해 온 것입니다. 남성들은 성관계에 있어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사회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여성은 눈 한번 잘못 떠도 화냥년, 걸음 한번 잘못 걸어도 잡년, 말 한마디 잘못해도 더러운 년 실로 억울하게 원통하게도 여성들은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정조라는 철제(鐵蹄) 아래 신음하여 온 것입니다.”[48]

유송난은 창열을 영숙에게 뺏기고 성장에 실패한 주인공이 된다. 작가는 남로당의 백웅과 적철 그리고 행동대원 홍철호 고수근 진맹찬을 통해서 붉은 사상은 대중의 적이자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모순된 권력으로 그 실체를 규정한다.

2.2 『별들의 고향』의 대중 구현방식

『별들의 고향』에는 다양한 대중이 등장한다. 소설 『별들의 고향』은 등장인물의 숫자가 다른 소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게 특징이다. 그중 특이한 것은 기생과 사창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기생의 삶으로는 송난의 어머니 초선이 있고, 사창으로 연심, ‘쥐도 새도 모르게 겉으로는 아무 의식 없이 사는 무식 대중의 한 사람’ 난주, 양공주 득순, 장미, 그리고 남로당원 유송난이 변하여 양공주가 되어 뒤를 잇는다. 이들 사창은 주인공 창열을 비롯하여 남로당원 홍철호, 일본에서 온 검은손 곽봉섭, 송난 아버지 (일제 강점기 대구 지사) 유경석, 달러 장수 피득칠, 포주 오덕수, 흑인 미병 토미, 백인 미병 스미스, 흑인 미병 브라운 등과 당대 대중의 삶을 보여주면서 한편 공창폐지법안 실시 입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싸우는 현장을 받치는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다.

창열이 유송난에게 실연을 당하고 피득칠의 손에 이끌려 봉황각에 갔다가 만난 연심은 단순히 창열의 상처를 가라앉힌 ‘젖은 걸레’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

48 김말봉, 『별들의 고향』 앞의 책 216쪽.

니다. 공창 폐지 운동의 결실로 1947년 5월 17일 인신매매 금지령이 내린 후 공창에서 벗어난 연심이의 후일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인신에 걸린 빚은 탕감이 되었으나 갈 곳이 없는 연심이들은 이부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와 당국이 주선한 트럭에 실려 전재민이 쓰고 있는 가마때기 집 속에 부려진다. 수수밥 세끼 주면서 아침 아홉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메리야스를 짜게 하므로 빚으로 차린 것이지만 호강하던 연심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들 달아났으며 연심은 그 길로 피득칠의 여관을 찾아간다. “김가 간 데는 가을도 봄이라고” 거기서는 검둥이 상대로 갈보청을 꾸미더라고 했다. 그래 포주 아저씨 앞에 와서 비두발괄을 하고 이 봉황각으로 다시 들어왔다. 공창폐지법안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연심을 통해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심과는 다른 사창으로 난주가 있는데 마작판 등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홍철호를 정부로, 곽봉섭을 물주로 교대로 받아들이면서 암흑가의 마담 같은 생활을 하고, 득순과 장미는 미군을 상대로 양공주라고 하는 해방 후 새로 생긴 직업에 발을 담근 대중의 삶을 보여준다. 창열과 김영숙을 죽이려다 실패한 유송난을 양공주의 신분으로까지 추락시킨 것은 위에 썼듯이 자기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시류를 좇아 남로당원이 되었다가 무의미한 죽음을 맞게 함으로써 이 역시 전쟁 유발 세력 남로당에 대한작가의 단죄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공창폐지법안 실시가 연기되지 않도록 싸우는 서사 중에 이런 사창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공창 폐지 후에도 사창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는 설정이라고 하겠다.

한편 주인공 최창열의 성장 서사를 통해 그의 대중으로서의 삶을 읽어본다. 창열의 서사 외에 피득순의 성장 서사도 주목된다. 우선 주인공 최창열의 성장 서사를 보면 최창열의 시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찰, 내적 독백, 대화, 반성은 두 차례의 탈피를 거쳐 창열의 성장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최창열은 사모하던 송난과 어렵사리 만난 자리에서부터 송난의 방 서가의 독서 목록을 보고 그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때 창열은 이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는 비판적이요, 민주 진영의 우익적 정예분자로 정평이 난(김영숙의 진술) 인물이다. 소설에서는 창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민주 진영에 서서 이데올로기와 맞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설명이 없다. 그러나 아나키즘이 공산주의와 분화하고 공산당을 제1의 적으로 간주하고 투쟁한 역사적 사실을 보면 작가

의 이런 설정이 이해되는 바 없지 않다.[49] 그에 비하여 유송난은 열여섯 살 되었을 때 부친의 장례에 참석했다가 첩실의 딸이라고 어머니와 함께 뜰 아래로 쫓기는 수모를 당한다.[50] 이 상처를 안고 자랐기에 송난은 사회제도라는 조직체에 반항할 야릇한 기질을 '북돋아' 성장하는 것이 창열과 다른 점이다. 비밀독서회에서 적철로부터 "인류의 행복 아니 조국의 학대받는 노동자, 농민을 위하여 우리는 숨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기성세력에 대항하는 것, 기성 조직체를 파괴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학교에서는 동맹휴학을 일으키고 공장에서는 대규모의 파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노동자는 결속하여 자본가에게 임금을 높이고 인심의 동요를 일으키는 데는 삐라를 뿌리는 것이 첩경이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51] 송난은 공산주의 이론을 접하면서 기생의 딸인 자기가 역사의 주체인 전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적철의 가장 신임받는 '따와레취'가 되었을까?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한편 '경북 대구의 양반의 집 장자'인 창열이 우익인사가 된 이유를 굳이 찾자면 창열의 전공을 들 수 있겠다. 창열은 반도대학 정경과 2학년생이다. 자신의 전공과 해방기 혼란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시대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창열은 민주 진영의 젊은이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으며 대통령, 총리, 외교관 등을 꿈꾸었을망정 혁명이나 투쟁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자기의 미래에 도움이 될 반려자로 용모가 아름답고 몸맵시와 목소리까지 매력적인 송난을 점찍고 그 마음을 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스스로 자신을 니체의 초인이라 자만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던 창열은 송난의 거절에 상처를 받고 절망, 자존감이 크게 손상을 입는다. 때마침 만난 피득칠이 창열을 유곽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서 창기 나연심을 만나게 된다. 창열은 기독교 신자이며 독실한 신앙인 박영주의 지기이다. 창열에게 반한 나연심은 창열에게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을 베푼다. 창열은 송난에게 받은 상처를 연심의 사랑으로 치유 받으나 성병을 앓고 동시에 다른 남자의 무릎에 안긴 연심을 보자 분노하고 연심에

49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85-195쪽.

50 김말봉, 『별들의 고향』, 앞의 책, 54-56쪽.

51 위의 책, 53-54쪽.

게서 돌아선다. 연심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창열에게 유서를 남기고 쥐약을 먹고 자살한다. 연심의 사랑과 죽음으로 창열은 드디어 송난으로부터 받은 실연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불쌍한 연심의 복수를 다짐한다. 영주 대신 나간 공창폐지실시 연기(延期)반대의 웅변대회에서 창열의 웅변을 듣고 감복한 오덕수의 추천으로 송난의 어머니는 창열을 불러 만나게 되고 송난과 창열은 드디어 가까워진다. 어느 날 창열이 송난의 집에 들렀을 때 둘은 인류의 미래를 논의하다 그들 서로가 사상에서 극단으로 대립하는 것을 확인한다. 창열은 송난이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창열을 좇겠다는 편지를 보내오자 기뻐하나 전국 학생 현상 웅변대회에서 성대 학생 오경춘이 김일성을 기생으로 스탈린을 애비 강도로 표현하며 본래 기생에게서 난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당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송난의 아픈 상처를 헤집는 바람에 송난의 적개심은 불이 붙는다. 김일성을 기생으로 표현할 때 위에 썼듯이 기생의 딸 송난은 죽실, 경찰 국진과 그 아내 봉희 등이 자신을 조롱했다고 생각, 다시 창열에게 예전의 사상으로 돌아간다고 절교를 선언한다. 5.10 선거 방해 공작과 남로당 프락치 사건으로 송난과 적철을 비롯 경진 죽실 홍철호 진맹찬 고수근 등은 투옥된다.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나온 송난 앞에는 송난 어머니의 죽음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송난은 적철에게 창열과 김영숙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의 정부가 된다.

죽음으로 증명해 보인 연심의 진정(眞情)으로 창열은 송난의 절교장에 흔들리지 않는다. 작가는 창열의 이 경과를 '제일의 탈피(脫皮)'라고 명명한다. 제이 탈피는 송난의 생일 초대에 유곽의 포주인 송난의 외삼촌 오덕수가 공창폐지 연기를 지지할 입법의원 섭외가 부진할 때 가짜 입법의원으로 오덕수의 돈을 갈취한 적철 홍철호가 창열, 영주와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결국 일대 격투가 벌어진다. 권총을 든 적철을 창열이 제압하고 총을 빼앗았으나 권총은 탄환이 없는 것이었다. 달아나면서 홍철호는 "최창열 너는 언제나 우리 손에 녹을 줄 알아" 소리친다. 송난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창열은 송난의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것(박영주가 귀띔), 오덕수가 유곽의 포주라는 것, 송난이 남로당원이라는 세 가지 사실을 이날 처음으로 알게 된다.[52] 창열은 이런 송난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 자신을

52 김말봉, 위의 책, 123쪽.

혐오하며 자신은 천재가 아니라고 반성하고 죽음까지도 고려해 보는 절실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창열은 '한 줄기의 광명'을 발견한다.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동네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시작하고 농사 연구를 위해 전공을 바꿔 수원의 대학 농과로 편입한다. 나는 김말봉의 소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택하는 경우 이를 아나키스트 작가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찔레꽃』의 경구가 귀농과 농업을 주로 한 연대를 제안한다든가 『생명』에서 김기철이 농사지으러 간다며 낙향하며 그 영농자금을 유화주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장면 등은 김말봉의 아나키즘과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이다. 개인적 선택인 듯 보이지만 김기철도 농업에 종사할 연대를 만드는 중이다. 좀 무리해서 명명해 본다면 작가는 창열을 아나키스트적 사고를 가진 우익적 인물로 거듭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5.10 선거에 유태명 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정강(政綱)도 농업에 가까운 일차산업 개발 약속들이다. 1. 금융계를 동원하여 강원도 일대 미개간지를 개척한다. 개척에 필요한 농민과 농구를 제공하고 추수기까지 종자와 비료와 식량을 공급한다. 2. 삼면으로 둘린 바다에서 해산물을 적극 획득하기 위하여 어선을 만들고 어부와 어장에 필요한 식량과 기구를 제공한다. 3. 일제 강점기에 시굴하던 광산이며 또 새로 찾아낼 광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와 기구와 자금을 융통한다. 이상.[53]

『별들의 고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성장 서사는 피득칠 피득순의 서사이다. 반전소설에서 이데올로기나 사상에 상관없이 사는 대중이 대부분이듯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피득순이 있고, 비록 달러 장사를 하지만 전쟁 중에 창열과 영숙이 송난과 적철과 경진들에게 끌려와 죽게 되었을 때 탈출을 도와준 피득칠이 있다. 피득칠은 한 때 검둥이 상대로 '갈보청'을 운영하기도 했던 것 같다. 득순은 양공주가 되어 달러를 벌면 오빠 피득칠에게 주어 생활비로 쓰게 했는데 피득칠은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불려 삼백칠십만 원의 큰돈을 갖게 된다. 그 돈은 결국 진맹찬이 xx청년단으로 조직을 급조하여 약간 모자란 듯한 피득칠의 돈을 갈취하고 대신 사업부장이라는 감투를 씌워준다. 전쟁이 나고 창열과 영숙이 피득칠의 집으로 피난 왔을 때 피득칠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53 위의 책, 203쪽.

궁기 있다더니 설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도 삼백만 원 뺏기고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깐요.” 한다. 창열과 영숙이 놀라 그 협잡군이 누구냐고 묻자 “그래도 괜찮아요. … 사실 그 돈이 어미 배속에서부터 가지고 온 돈은 아니니까요” 하는 말을 듣고 영숙은 평소에 좀 모자란 듯이 창열이가 늘 말하기도 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 피득칠이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결단코 흉내 낼 수 없는 인생관을 가진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 한다.

득순은 남다른 간병 솜씨가 있어 폐결핵 환자이자 남로당 두목인 백웅을 돌보아 주기도 하고 6.25 전쟁 시 여맹원 지하실에 갇힌 우익 창열과 김영숙에게 음식과 물을 몰래 건네주며 살려내기도 한다. 득순은 어린 시절부터 사모해 온 창열을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이때 홍철호를 이용해 창열과 영숙이 갇힌 곳을 알아냈지만, 득순은 이데올로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의식도 없다.

3 『별들의 고향』의 ‘광명’과 ‘별’의 의미

3.1 대중과 유리된 이념의 허상

작가는 대중의 삶을 그리면서 대중과 유리된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어떻게 구현했을까, 보도록 하자. 먼저 박국진과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경진의 비극이 있다. 국진과 경진 남매는 홀어머니의 손에 자랐다. 일제강점기 학도병으로 과달카날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국진은 경찰학교 교관으로 취업했다가 종로경찰서 사찰계 주임이 된다. 그러나 경진은 남로당원이자 의과대학 조교수인 백웅과 의기투합 동거하는 남로당 최고 열성분자의 하나이다. 경진은 학교도 퇴학하고 어머니에게는 혈연을 끊겠다는 절연장을 써놓고 백웅에게로 간다. 백웅을 에워싼 동무들은 쌍수를 들어 그들의 여왕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축배를 올리었다. 그리고 멀리 크렘린 궁성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김(만)추가 찾아왔을 때 경진에게 돌아오라는 간절한 편지를 써 보내는데 “경진아 사람은 사상에서 살아야 하겠다. 그러나 어미와 자식은 사상 이전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닐까.…” 경진은 이 편지를 받아 와드득 찢어 스토오브에 넣어버린다. 드디어 공창폐지가 실시된다는 빅뉴스가 전해져 공창폐지 역원들이 승리의 악수를 나눌 때, 백웅은 이에 대항하여 남로당 상임 간부회의를 열고 1. 각 야체

이카에다 지령을 내릴 것 2. 비라를 살포할 것 3. 영등포 일대 큰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선(銅線)을 절단할 것을 결의한다. 국진은 경찰학교 교실에서 어딘지 수상해 보이는 학생 김만추를 수색하여 남로당의 지령서(1.비라 등사 김완수 2. 비라 살포 고수근(시내 남대문 근처) 정명수(광화문 네거리) 박근칠(영등포) 3. 선동 연설 박경진, 최덕순(방직공장) 홍철호 진맹찬 (고무공장) 4. 전선 절단 안강식 이천복)를 찾아내고 그가 우익진영에 배치된 프락치임을 밝혀낸다. 붉은 사상의 전위대가 남한의 중추신경인 경찰학교에까지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에 국진은 등줄기를 지나가는 소름을 느낀다. 이 사건으로 남로당원의 대대적인 체포 구금이 이루어지는 중 경진은 체포될 위기를 당하자, 절연장을 낸 어머니의 집으로 폐결핵 중증의 백웅을 데리고 들어와 다락에 숨어지낸다. 애국부인회 부회장인 P여사는 자기의 입장을 희생하면서 경진을 돌보아 준다. 경진은 입법 의원을 포섭하려고 혈안이 된 포주 오덕수의 돈을 갈취하게 적철을 충동하고, 무엇보다 오라비 국진이 비밀독서회 회원인 봉희와 혼약을 맺게 되자 인민 재판을 하듯이 봉희를 비밀독서회에서 공개적으로 제명하는데 앞장 선다.

전쟁이 나자 인민군의 트럭에 실려 적철과 내려온 송난은 잡혀 온 우익인사 처형에 나서는데 경진 죽실 난주 득순과 함께 인민재판위원장 피득칠도 불려온다. 국진 부부를 체포해 온 경진은 자신의 권총으로 국진과 봉희를 총살한다. 오빠인 국진에 확인 사살까지도 서슴지 않는 경진이다. 국진과 봉희가 혼인한 지 엿새 되는 날이었다. 인민군 장교들은 경진에게 “박동지는 철의 심장이오.”하며 악수한 손을 흔들었고, 인민재판위원장 피득칠은 전신에 쥐가 내려 십 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전쟁을 피해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사람은 홍철호 송난 난주 그리고 곽봉섭인데 곽봉섭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삼촌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라면서 노가다로 풀려 사람을 치는 것을 배우고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걸 배웠다. 돈 많은 과부를 데리고 포목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고 여자는 당뇨병으로 죽어 곽봉섭은 해방이 되자 조국으로 돌아온다. 음식 솜씨가 뛰어난 난주와 다시 일본으로 갈 계획인데 곽봉섭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돈 천오백만 원을 안 갚은 교사 우일모를 목격한다. 법적으로 고발할 수 없는 검은돈이기에 안 갚고 버티는 우일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진맹찬에게서 권총을 구한 홍

철호에게 백만 원을 줄 테니 우일모를 죽여달라고 살인 청부를 한다. 홍철호와 적철은 M녀 귀국축하회가 언더우드 여사의 집에서 열린다는 소식과 거기에 우일모와 창열 영숙이 모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언더우드 여사의 집으로 간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언더우드 여사여서 적철은 총을 쏘아 언더우드 여사를 쓰러뜨리고[54] 밖이 궁금하여 나온 창열의 공격으로 적철은 달아나고 홍철호는 붙들린다. 전쟁이 나 감옥에서 출옥한 홍철호는 고수근과 파출소의 순경 두 사람을 이유 없이 사살한다.

영숙과 창열은 언더우드 여사의 소개로 미국 선교사 E부인의 추천을 받아 미국 예일대 교육과에 풀 스칼라 십 유학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자를 받기 위해 미대사관을 찾아가다가 전쟁이 난 것을 알게 된다. 다음 주에 다시 갔으나 비자 받는 일이 막히게 되어 일단 헤어져 각자 숙소로 돌아간다. 창열은 창민과 피난을 가려고 짐을 지고 앉아 밤을 새웠으나 한강 다리는 폭파되고 피난민이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데 창민은 인민군을 따라 만세를 부르며 따라가고, 창열은 영숙을 찾아 혜화동에 갔으나 만나지 못한다. 창열은 혹시나 하고 한강으로 달려간다. 한강 인도교는 무너지고 대중은 배를 타러 아우성인데 창열은 다시 영숙을 찾아 철교 쪽으로 간다.

> 철교 위에는 보퉁이를 인 허다한 여인과 배낭을 짊어진 사나이들이 개미 떼 모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국군을 만재한 트럭이 두어 대 속력을 내어 달려온다. 인민군이 입성하여버린 서울시가지를 결사적으로 횡단하여 온 국군의 최후부대다. 피난민들은 트럭을 피하여 철교 양편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워낙 사람이 많은지라 트럭이 지나갈 만한 면적은 생겨나지 않았다. 트럭에서는 쉬지 않고 경적이 울렸으나 사람들은 선 자리에서 일보도 비켜날 수 없다. 한발 내딛으면 푸른 강물이다. 트럭은 연방 경적을 불면서 약간 속력을 늦출 뿐 여전히 전진하여 나간다. 창열은 눈을 감아버렸다. 철교 난간에서는 보퉁이를 인 여인이 아이를 업은 채로 강물 속에 떨어지자 "어마 어마"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며 여자며 아

54 이것은 실화이다.

이며 어른이며 사람의 뭉텅이가 강물 속으로 떨어졌다. 트럭은 철교를 완전히 벗어나 영등포 쪽으로 달려가는 것까지 보고 창열은 그 자리를 떠났다.[55]

전쟁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중은 무수히 한강으로 떨어져 죽어갔다. 트럭에 탄 군인이 대중을 죽게 했으나 적인가? 작가는 전쟁은 군인에게도 대중에게도 참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르뷔스가 말한다. 소설『광명』에서 군인에 지원한 주인공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달리고 싸웠다. 전쟁의 책임은 대중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중의 신체를 징발한 지배자에 있다. "우리 인민군이 해방 시켜 논 서울로 들어갑세. 도망질하문 반동이다. 알겠지비? 반동분자는 총살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인민군이나 댓 살 난 어린아이 하나가 겁을 집어먹고 "엄마"하고 우니까 인민군의 한 사람이 포켓에서 약탈품인 듯, 초콜릿을 꺼내 아이 손에 놓아주며 "울지 말어. 이거 먹어 봐라." 하고 주는 인민군도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군인에 징발된 대중인 것이다.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리라. 전투하는 자 이외의 인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그것은 몇 번이고 되풀이될 것이다…(422).

영숙의 아버지는 납치되어 평양까지 가서 수많은 우익 인사들과 우물에 빠트려 죽임을 당하고 피골이 상접한 유태명씨는 육군 중위로 임관되어 연락장교의 임무를 띠고 평양에 온 창열의 주선으로 유엔군의 트럭을 타고 서울로 돌아온다. 그러나 며칠 만에 유명을 달리하고 만다. 1.3후퇴[56]가 시작되자 영숙은 혜옥 혜민 혜영, 아홉 살부터 내리 세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피난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이다가 생계조차 막막해지자 영등포역에서 사흘을 기다려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탄다. 그러나 기차는 화물차여서 춥고 화장실도 없는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첩첩 올라타 아이들은 앉은자리에서 오줌을 싸는 상황이다. 추위와 기아 속에서 아기들이 죽어 나가고 어미들은 지나가는 지게꾼에게 천 원짜리 두 장을 주면서 아기를 묻어 달라고 눈물로 부탁한다. 이런 일이 몇 차례나 거듭된다. 조치원에서

55 김말봉,『별들의 고향』, 앞의 책, 310-311쪽.

56 작가는 1.4 후퇴를 1.3 후퇴라고 적고 있다.

사흘 걸려 대전에 왔는데 대전에서 갈아탄 차는 눈보라 속에 지붕도 없는 무개차다. 대전에서부터 기차는 속력을 내서 위험하기 짝이 없으나 춥고 배가 고픈 사람들은 이불 끝을 잡고 졸고 있는데 비명과 함께 유태명씨 부인이, 안고 있던 어린 혜영이와 함께 기차에서 떨어져 골짜기로 사라져 버렸다. 이불과 함께였다. 영숙은 어미를 잃은 두 조카를 안고 "세상에도 불쌍한 우리나라 사람들 알겠지? 혜옥이 또 혜민이 자라서 이담에 자라나서 말야…아버지 어머니를 왜 빼앗겼는지 잘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불쌍한 동무위해 좋은 일 해야 하는 거야 응? 혜민이"

남한에서 활동하던 남로당원은 모두 죽는다. 경진이 서은희 집에서 칼로 천정을 쑤셔 체포한 창열과 영숙을 송난이 고문하다 피득칠의 도움으로 탈출하자 지하실에서 따라 나오던 적철이 권총을 든 채 폭격에 죽는다. 백웅도 폐결핵으로 죽고 경진은 폭격이 심해지자 아이를 업고 오죽실 여맹원 간부 등과 남산동 고수근의 집 지하실로 피하는데 폭격으로 고수근의 집이 산산이 무너져 모두 횡사한다. 어머니도 오빠도 동지도 적으로 여기는 경진의 냉혹한 사상성은 대중의 자유와 생명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고의 잔인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송난과 홍철호만 살아남았다. 송난과 홍철호는 난주와 곽봉섭과 함께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얻어 타게 된다. 홍철호는 맨주먹으로 곽봉섭 덕에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타고 가면서도 곽봉섭을 바다에 차 내어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 홍철호의 논리는 이렇다. 곽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 모리배다. 그가 마카오며 도쿄에다 자본을 던져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 우리들의 혁명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런고로 곽을 없애는 것은 세계 혁명운동을 돕는 간접적 역할이 된다. 그러므로 곽을 죽이는 것은 결단코 악이 아니다. 선이다. 절대 선이다, 라는 것이다. 곽봉섭은 곽봉섭대로 홍철호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 일본에 가서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은 홍철호와 곽봉섭 뿐만이 아니다. 달러 십여만 불(弗)과 황금 삼백 냥과 다이아반지 대여섯 개가 난주의 손금고에 들어있어 각자 일본에 가면 그 돈으로 자기 할 일을 궁리한다. 송난에게 황금 백냥중은 따로 받아 동경호텔에 가서 기다리라는 사나이가 있으나 송난은 그 사나이를 기다릴 생각이 없다. 동경까지 가면 그만이야. "황금이 백냥 중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육칠천만 원, 고까짓 걸로 무얼 한다고." 그 얼간 오기 전에 달러로 바꿔

일만 달러 만들어 대만이나 상해나 홍콩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야 생각하고, 난주는 사나이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손금고에서 황금과 반지를 염낭에 담아 가슴 깊이 간직한다. 동경에 가면 조선 요리를 만들어 내놓는 일을 할 연구다. 갑판에서 홍철호와 곽봉섭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중에 태풍으로 배가 뒤집혀 그들은 바닷속으로 '솔랑' 사라지고 만다.

3.2 '별'과 '광명'의 의미

바르뷔스의『광명』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의 관찰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전쟁박물관에서 전시물이 되어 있는 전장의 도구들이 있다. 참혹하게 죽음과 함께 널브러져 있던 그것이 애국의 전시물로 바뀌어 걸려있다. '나'는 전쟁박물관이 한 개의 신전(神殿)이라 생각한다. 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이 건물은 그 교회와 아주 비슷하다. '나'는 두 손을 하나로 합장(合掌)시키고 눈을 감게 하는 (교회의) 십자가와 전선에 있는 묘표(墓標) 위에 엉거주춤 꽂혀있는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 몽유병에 걸린 국민이 앞으로도 이 끝없는 비참한 복종의 비극을 되풀이하려 드는 것은 실로 이러한 모든 신전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財界)의 폭군, 공업계의 폭군, 제국의 폭군 왕국의 폭군들—'내'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자들은 모두가 이 폭군의 공모자이거나 괴뢰이다—이 내일도 또한 일반 평민의 광신과 제대병(除隊兵)의 피로와 전사자의 침묵을 발판으로 하여 또다시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이러한 신전이 있기 때문이다.

개선문 앞에서 군대가 분열식을 행할 때 그곳에 일만 킬로미터에 걸린(친) 긴 프랑스 군의 관(棺)이 열을 지어 분열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고 있을 것인가. 분명코 그 관의 대열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리고 이런 신전이 존재하는 한 지금 박물관의 어둠침침한 현관에 세워 놓은 국기는 바람에 휘말려 십자가의 형체를 이루기도 하고 큰 낫의 형체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저 국기는—의연히 약탈품 위에 계속 휘날릴 것이다.[57]

---

57 앙리 바르뷔스, 손석린 역,『광명』, 을유문화사, 1967. 예수가 말씀하시는 도덕을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 자기들에게 유리한 종교로 만들어 낸 그들은 진리를 독살시켜버리고 만 것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간다, 아니다, 단지 눈을 뜨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팔을 펼쳐야 한다. (481-482) 그렇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 우리들의 방대한 내적인 생명을 이끌기 위해 또한 전 인류의 생명 속에 내포된 몫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될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 (508) 여기서 말하는 광명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느님이고 영혼이다.

창열이 영숙을 다시 발견하고 사랑하게 되는 성장 서사 후반에는 창열의 타락한 교회와 신학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동생 창민도 그렇게 비판)과 이에 답하는 영숙의 긍정론이 등장한다. 창열이 농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로 했다는 말에 영숙은 감사합니다, 인사한다. 왜냐고 묻는 창열에게 영숙은 나라를 사랑해주시니까요, 라고 답한다. 문과나 음악과나 그림 같은 것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취미 자기의 천재 자기의 개성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농과나 공과나 또는 의학을 선택하는 사람은 민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민족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고마운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숙이 왜 신학을 택했는가, 그건 자기 향락이 아닌가, 창열이 묻자 신학은 애국 운동이라고 답한다. 자기변명이라고 웃는 창열에게 영숙은 “신학은 요, 민족의 영혼을 걱정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인격을 건설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을 비웃는 사람들은 곧잘 인학(人學)도 못한 주제에 신학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신학은 결국 따져보면 민족을 행복스럽게 살도록 지도하는 인학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한다. 영숙은 바르뷔스와 같은 논리를 말하고 있다. 바르뷔스가 말하는 진리, 영혼은 바로 영숙의 신학과 통한다.[58]

이다. 2천 년 동안 그들의 계급적 이익을 선의 법칙의 이익보다 위에 둘 것을 보여온 것이다. 어떠한 말로써도 어떠한 숫자적 통계를 늘어놓아도 교회가 인류에게 준 크나큰 악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492) 교회가 그 스스로 압제자가 아니었을 때는 그리고 그 암흑의 힘을 제어하고 있었을 때는 그 권력을 딴 압제자에게 빌어주었다. 그들의 구실을 신성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아직 교회는 도처에서 빈자의 지배를 바라지 않는 모든 인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 교회는 딴 귀족 단체와 별 다름없는 귀족 단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십자가는 예수의 뺨을 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에서 위선자를 만들어내듯 향토적인 사랑에서 국가주의자를 만들어냈다. (492)

58 김경연은 앞의 논문에서 “김영숙의 발화에서 간취되는 것은 기독교주의보다 우선하는 국

이때의 창열은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기 전이었다. 송난과 적철이 창열과 영숙을 죽이기로 작정, 피할 수 없게 됐을 때 창열은 실로 진정을 다 해 하나님께 구해주소서 기도를 올린다. 때마침 비행기의 소음이 들리고 기총소사 소리가 처마 끝에서 들리자 모두 지하실로 피해 내려갔고 맨 나중에 당도한 창열의 일행이 지하실 어구에 서 있게 된다. 기총소사는 여전히 계속되는데 물끄러미 뜨락을 내다보던 피득칠은 갑자기 어떤 뜨거운 물결이 콱 가슴에 치받혀 올라오는 것을 느끼자 그는 전신이 훨훨 타는듯한 힘이 사지에 뻗치기 시작했다. 피득칠은 창열의 깃고대를 건드렸다. “도련님.”하고,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리키는 피득칠의 눈을 치어다보는 창열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절 따라오세요.” 피득칠이가 나지막하게 부르짖고 창열의 손을 끄을어 댕겼다. 거의 같은 시각에 창열의 손은 영숙의 손을 끄을고 세 사람은 비식 비식 한 걸음 한 걸음 문 있는 데로 나갔다.[59]

“파파파 팡 파파파팡” 기총소사는 한결 맹렬하여졌다. 소낙비를 피하는 사람 모양으로 피득칠이가 앞서 달렸다. 창열은 영숙의 손을 잡고 득칠의 뒤를 따라 다름질을 쳤다.(…) 길이 넘는 담 아래 이르자 피득칠이 “도련님 나를 밟고 넘어가세요, 속히” 하고 담에 착 붙어 선다. “영숙씨 먼저” 창열은 영숙을 안아 피득칠의 어깨 위에 올려세웠다. 그러나 영숙에게는 여전히 높은 담이었다. 창열은 “피군 좀 참게.”하고 한발로 피득칠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며 영숙을 안아 담 너머로 넘겼다. 그리고 창열이가 한 발을 빼고 마저 담을 넘으려는 순간 “탈주다, 범인 탈주다”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총소리도 났다. 인민군이 쏘는 탄환은 담 아래서 있는 피득칠의 가슴에 참다랗게 적중되고 피득칠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피득칠의 이 장면은 기독교 성령의 역사와 매우 닮았다. 작가는 그러나 이 기적을 기독교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고 기독교 신자가 아닌 대중 피득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와 신학자를 비판하는 문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진리는, 광명(클라르테)은 제도가 된 종교적 언어가 아닌, 전통과 기존 관념을 떠난

가주의이며 상이군인을 위한 헌혈은 국가주의적 모성이라고 말한다.” 204-205쪽.

59 둘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2)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피득칠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한다.

창열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숙이뿐임을 깨닫고, 영숙에게 연심과의 사건이며 송난과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창열은 영숙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 맨 깊은 곳에 감추었던 비밀이 하나도 숨김없이 흘러나오고야 마는 일이 신기하였다. 영숙이 실은 창열을 10년 전부터 사랑해 왔다는 고백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된다. 영숙은 대구 제○○육군병원 간호 군속으로 취임해 대퇴골에서 탄환을 세 개나 끄집어낸 상이용사가 피가 없어 수혈하지 못하자 팔을 걷어 "제 피를 써보시지요." 해서 외과의 H박사를 감동시킨다. 이월이 되어 영숙은 부산 제○○육군병원 부속 간호장교로 전임되어왔다. 중위의 기표를 달고. 최창열도 대위가 되어 부산으로 교대되어 왔다. 창열과 부산 시내로 나왔을 때 릴리 득순을 만나 득순이 점심 대접하려다 시간이 안 되자 준 돈으로 환자가 오일 페니실린이 모자라 새로 상처가 화농해 아파하나 약이 없자 그 돈으로 오일 페니실린을 사는 영숙이다.

영주에게 땅 위의 별이라고 불린 득순의 서사는 부산으로 피난 와서 계속된다. 오빠 피득칠이 죽고 득순은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선여구락부'에 나갔다. 장미도 이곳에서 댄서로 일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풍만한 몸매의 장미는 인기가 높아 쉴 새 없이 춤을 추며 돌아간다. 달러나 티켓은 스타킹 대님에 착착 꽂는다. 그리고 계산해 본다. 난주는 곽봉섭과 그 뒤에서 이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부탁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해서 모으고 사들인 황금이 자그마치 삼백 냥쭝이나 되고 다이아 반지가 원 캐럿이 셋, 투 캐럿이 둘, 또… 오중으로 된 진주 목걸이와 대추만큼씩 한 자연 진주 반지가 다섯 개……나도 그런 패물을 사 모을 것이다, 장미는 꿈꾼다. 그런데 차례를 기다리다 순서를 여러 번 놓친 흑인 미군이 격노하여 장미를 권총으로 쏘는 일이 일어났다. 장미는 가슴에 총을 맞아 선지피가 쏟아져 나오고, 다리를 버둥거려 치켜진 드레스 아래로 양말대님 사이에 서양 돈이며 티켓이 끼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 타박타박 큰길로 걸어 나오는 릴리의 머릿속은 몽롱하여진 채 다리에도 고즈넉이 맥이 풀렸다. 길을 걷는 릴리의 눈앞에 버둥거리는 장미의 두 다리며 피에 젖어가는 드레스가 자꾸만 나타난다. 릴리는 고개를 흔들고 치를 떨면서 자기 집 골목을 들어섰다. 문 앞에는 창열

이와 영숙이 손에 무엇인지 들고 서 있다. “언니 손님 오셨어요” 하는 릴리는 설움이 복받쳐 우는 소리로 들어들 오시라고 한다. 피득칠의 아내 분아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영숙도 분아를 안고 눈물을 흘린다. 피득칠을 생각함이다. 릴리는 서울서 6.25때 지난 일들이며 9.28때 겪은 소식을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다가 “나 오늘은 홀에 안 가기로 하고 왔어요.” 하고 이 귀중한 손님을 붙들어 볼 생각이다. 저녁상이 들어오고 밖에 나갔던 릴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요새는 거지 등쌀에 못 살겠어.” 하고 달걀을 창열의 앞에 놓고 돌아앉아 레이션 뚜껑을 열어 밥상에 올려놓는다. (작가는 릴리가 아직 댄서 생활을 그만 둔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여구락부에서부터 계속 득순을 릴리라고 쓰고 있다). 이때 찾아온 거지는 박영주였다. “저녁 요기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창열이 왈칵 문을 열어제쳤다. “박군! 이게 웬일이야. 아니 박군이 왜 이렇게 됐어.” 뼈만 남은 영주는 정신없이 밥을 먹고 또 한바탕 토하고 창열과 대중탕에 가서 때를 벗기고 이가 끓는 속옷 대신 새로 사 온 속옷을 입는다. 영주는 각혈을 하여 또 모두를 놀라게 한 다음 영숙이 근무하는 육군병원에 입원한다. 릴리는 영주의 병문안을 와서 이제 홀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집은 처분하여 셋집으로 옮기고 분아엄마는 빈대떡을 구워 팔아 생활비를 벌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자 영숙은 득순을 이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시킨다. 창열과 영숙과 영주 모두 득순이 얼마나 버틸까 걱정했으나 간병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득순이 잘 적응할 뿐 아니라 영주의 병도 감동적일 정도로 보살펴 영주의 건강은 차츰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 득순은 거지로 보인 영주를 대하는 창열과 영숙의 태도에서 영주가 함부로 대할 인물이 아닌 것을 알았다. 박영주는 국방군에 지원하고 아사지경에 이르러 부산에 와 창열을 만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이고 기적이라고 하며 “내가 기도를 못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팔이 나를 더 힘 있게 안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어.”라고 말하자 창열은 “영주군 나도 기도를 배웠네, 자네가 노상 기도기도하였지만(…) 지금은 기도를 배웠어. 기도를 배울 때까지는 굉장한 대가를 치렀지만.” 한다. 영주는 “자네가 이번 사변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도를 배웠다면 난 이런 고난쯤은 달게 받아도 좋아”라고 한다. 이 대목은 단순히 기독교 사상 토로의 한 장면이 아니라 바르뷔스가 말한 광명의 한 대목이다. 득순은 땅 위의 별이라고 지칭되는데 남의 불행을 위로하며 아낌없이 사랑을 베푼 득순의 영혼이 광

명으로 해방되어 곧 '별'로 거듭난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김말봉은 앞에서 인용한 글 「대중문학」에서 대중소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소설의 전면에 흐르는 모럴이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그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1935년 대작 『밀림』을 연재할 때 작가의 말에서 이미 피력한 것이다.

『별들의 고향』의 대중은 각자의 삶을 보여주되 등장인물들과 얽혀서 어떤 일을 만들어 낸다기보다 각 등장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편이다. 한 마디로 이 소설은 해방기 한국의 현실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고만 큰 줄기 속에 대중들의 삶을 그리면서 그들 삶 속의 모순을 드러내며 빛나는 광명을 나타내 보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숨기었던 대중의 영이 해방되는 이야기, "하나도 볼 데 없는 인물로 하여금 사람들이 침을 뱉는 시궁창에서 뛰쳐나와 참된 빛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민중문예(최태응)"라고 했듯이 김말봉의 '반전소설'이란 결국 대중이 '눈을 뜨고' '영이 해방되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대중의 소설이라고 하겠다. 대중이 '별'인 것이다. 소설 『광명』에서 되풀이 제시되는 '눈을 뜬다'라든가 '영'의 해방이라는 것은 민중을 위한다거나 교훈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 피득순 처럼 그 자신도 의식함이 없이 자신 속에 숨기어 있는 영(靈)이 광명으로 해방되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주가 작은 광명이라도 한데 모아 어두운 고향에 비춰보자라고 한 것은 김영숙이 신학을 '민족의 영혼'을 걱정하는 학문이며 민족의 인격을 건설하는 학문이라고 한 것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바르뷔스가 광명을 하나님이고 진리라고 하였듯이.

모든 아나키스트는 다른 부류의 사람과 구분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공통점이란 사회조직에서 권위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된 제도의 모든 규제를 증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위를 부정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나키스트이다… 반전소설 『별들의 고향』은 그런 점에서 아나키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60] 소설 『광명』도 그와 비슷하다.

4 결어-'광명'을 품은 '대중'이 곧 '별'이다

60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이지선·김지은 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91쪽.

이 글은 김말봉의 장편 『별들의 고향』을 반전소설적 시각으로 읽어 본 것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의 시기에 전작으로 쓰인 이 소설은 그동안 낙장과 훼손 등으로 완전하지 못한 텍스트로 존재해 왔는데 이번에 완본을 구해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별들의 고향』의 길이는 2백자 원고지 2,500장으로 상당한 역작이다. 소설적 시간도 4년에 걸쳐 있으며 소설이 쓰인 시대도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이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소설화가 결코 쉽지 않았을 터다. 게다가 아나키스트인 김말봉은 『화려한 지옥』을 쓸 때 아나키스트 정당의 부녀부장이었으나 『별들의 고향』을 쓸 때 사정은 만만치 않아 스스로 민주진영의 작가라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장편 『별들의 고향』 연구자들은 이 시기 김말봉의 소설에서 반공주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나는 작가 김말봉이 『별들의 고향』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소설 속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한 점, 아들 영이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함으로써 작가가 어쩔 수 없이 반전의식을 가졌으리라는 추측과 최태응 작가의 평문 등을 참고해 반전소설로 읽어 보았다. 최태응 작가가 말한 바르뷔스의 소설 『광명』이 반전소설이었기 때문이며 "민중 문예"로서 전쟁 유발 지배권력을 비판하며 대중이 눈을 떠야 한다는 반전논리가 아나키스트 김말봉의 사상에 그리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서였다.

김말봉이 전상범 이종하 등과 신문화운동에 관심을 갖던 1920년대의 문화적 지형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해서 침략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전 인류적 비판의 소리가 고조되고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세계지배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세계 개조'의 소리가 전 지구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때였다. 김기진의 클라르테 운동 수용과 로맹롤랑의 민중예술론 등이 소개되면서 바르뷔스의 반전소설 『광명』도 수입되어 작가 최태응의 글과 여러 한국문학사의 기록에서 보듯이 문단에서의 반향이 상당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전통과 상속과 모든 것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르뷔스는 1950년대에도 소개되고 있어 한국전쟁기 아들을 전쟁에서 잃어야 했던 김말봉은 그런 점에서 '반공(反共)소설'보다 '반전(反戰)소설'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전쟁의 직접 체험이 충분하지 않은 김말봉이 쓸 수 있는 소설방식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별들의 고향』이 전시 중에 쓰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전소설

『별들의 고향』은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별들의 고향』 완본 발굴은 훼손된 텍스트에서 불가능한 '자세히 읽기'가 가능하여 김말봉이 보여준 치밀한 기법, 반전소설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바르뷔스의 반전소설 방식처럼 김말봉은 전쟁 유발자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었으며 전쟁을 결정한 지배자의 죄악을 밝히기 위해 전쟁 발발 전 2년 반의 시간 동안, 대중의 삶과 현실 속에서 전쟁 유발자 남로당의 논리와 행위의 모순을 짚어냈다. 작가는 한국전쟁 유발의 책임을 남로당과 북한, 그리고 소련 등 전체주의에 물었으나 역사적 자료를 나열하는 대신 대중의 삶에서 모순을 밝혀내는 것을 그 방법으로 한 것이다. 60여 명이 넘는 인물의 대거 등장은 작가가 '대중'과 '대중의 삶'을 그리고자 동원한 독특한 설정이다. 그동안 『별들의 고향』 연구에서는 '대중'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쟁 유발의 지배권력 계층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생 초선, 사창 연심, 난주, 득순, 장미 와 여대생 김영숙, 유송난, 오죽실, 이봉희, 박경진과 대학생 최창열 박영주… 달러 장사 피득칠과 같은 다양한 대중의 삶에서 전쟁 유발자의 모순을 캐냄과 아울러 '대중'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별들의 고향』이다. 숨기었던 대중의 영이 해방되는 이야기, "하나도 볼 데 없는 인물로 하여금 사람들이 침을 뱉는 시궁창에서 뛰쳐나와 참된 빛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민중문예"이기에 이 '반전소설'이란 결국 대중이 '눈을 뜨고' 주인공이 되는 소설이라고 하겠다. '광명'을 지향한 대중이 '별'인 것이다. 소설 『광명』에서 되풀이 제시되는 '눈을 뜬다'라든가 '영'의 해방이라는 것은 민중을 위한다거나 교훈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중 피득순처럼 그 자신도 의식함이 없이 자신 속에 숨기어 있는 영(靈)이 '광명'으로 해방되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박영주가 작은 광명이라도 한데 모아 어두운 고향에 비춰보자 라고 한 것은 김영숙이 신학을 '민족의 영혼'을 걱정하는 학문이며 민족의 인격을 건설하는 학문이라고 한 것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바르뷔스가 광명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느님이고 영혼이라고 하였듯이.

참고문헌

기본자료

구명숙 외 편,『해방기 여성단편소설 Ⅰ』, 역락, 2011, 114쪽-128쪽.
김말봉,『별들의 고향』, 정음사, 1953.
_____,「성좌는 부른다」『연합신문』 1949.1.23-29 6회 연재.
_____,「이십 일간」, 진선영,『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 서사 모음』, 소명출판, 2018, 48-150쪽.
_____,「내 아들 영이」,『문예』 1953.9., 17호, 176-178쪽.
_____,「대중문학」,『경향신문』, 1958, 3.5.1면.
_____,「미국에서 만난 사람들-몇몇 재단의 대표들」, 정하은 편『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316쪽.
_____, 수필「멀리 떠나있는 남편」, 신천지, 1952.5., 41-43쪽.
_____, 박종화 序,『태양의 권속』 삼신출판사, 1953.6., 44-45쪽.
_____,「자유예술 인의 전결-유네스코대회에 다녀온 이야기」,『신태양』 1953.1., 구명숙외『한국전쟁기 여성 수필 선집』, 역락, 2012, 73-77쪽.

단행본

김마태,『마태 김의 메모아』, 지와 사랑, 2012, 89쪽.
문덕수 편,『세계문예대사전』 상, 성문각, 1975, 814쪽.
이호룡,『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186쪽.

번역서

앙리 바르뷔스, 손석린·정봉구 역『광명』, 을유문화사, 1969, 275-508쪽.
장 프레포지에 지음, 이소희·이지선·김지은 옮김『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91쪽.

논문 기타

권보드래,「김기진의 클라르테 번역과 한국문학의 레닌적 계기」,『사이(間)』 37호, 2021, 199-241쪽.
김경연,「삐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9, 68호, 165-224쪽.

김기진,「상티망탈 프로므나드」,『개벽』37호, 1923.7, 홍정선 편,『김팔봉문학전집』제1권, 문학과 지성사, 1989, 409-426쪽.
_____,「클라르테 운동의 세계화-바르뷔스 로맹롤랑 쟁론Ⅰ」,『개벽』, 1923.9,『전집』, 427-441쪽.
_____,「바르뷔스 로맹롤랑 쟁론 Ⅱ」,『개벽』40호, 1923.10,『전집』, 442-469쪽.
_____,「또다시 클라르테에 대해서-바르뷔스 연구의 일편」,『개벽』, 41호, 1923,11.,『전집』, 470-473쪽.
서정자,「김말봉의『밀림』재론」,『여성문학연구』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72-208쪽.
이민영,「전후 여성작가와 열전사회의 반공담론—김말봉의『별들의 고향』(1953)과 임옥인의『월남전후』(1956)를 중심으로」『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202호, 2023, 137-175쪽.
이병순,「김말봉의 장편소설 연구」,『한국사상과 문화』, 61호, 한국사상과 문화학회, 2012, 51-75쪽.
이봉범,「1950년대 문화재편과 검열」,『한국문학연구』34집, 한국문학연구소, 2008, 7-49쪽.
_____,「1950년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반교어문연구』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61-305쪽.
이원동,「한국프로문학의 형성과 클라르테 운동의 수용」,『국어국문학』172호, 국어국문학회, 357-391쪽.
조민형,『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논문개요 ⅰ ⅱ ⅲ &1-188쪽.
_____,「냉전기 이분화된 '모럴'과 국민 탄생의 (불)가능성-김말봉의『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연남경 외,『전후 비평 담론과 여성작가의 재조명』, 역락, 2021, 311-336쪽.
조영암,「김말봉」『한국대표작가전-부(附) 작품연보』, 수문관, 1953, 79-90쪽.
진선영,「한국전쟁기 김말봉소설의 이데올로기연구」, 진선영 편,『김말봉전집』6, 소명출판, 2016, 461-486쪽.

최미진·김정자, 「한국전쟁기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연구」, 『한국문학논총』 39호, 한국문학회, 2005, 293-321쪽.
최태응, 「최근의 여류작품 김 장 임 삼씨의 근작에 대하여」, 『경향신문』 1949.4. 20.
스티븐 스펜더, 최용미 옮김, 「D. H. 로렌스, 영국, 그리고 전쟁」, 김재용 엮음, 『탈 유럽의 세계문학-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문학의 지각변동』 글누림, 2020, 89-105쪽.

Abstract

A Study of Kim Mal-bong's "Homeland of Stars" (Complete Edition)
– The Korean War and the Structure of Reversal Fiction, and the Meaning of 'Stars' and 'Clarity'

Seo, Jung-ja

This passage is an analysis of Kim Mal-bong's novel "Homeland of Stars" in Korean. It explores the novel's narrative elements, particularly its elements of reversal fiction. Written as a precursor to the Korean War in 1950, the novel has been studied as a text that has suffered from incompleteness and damage over time. The author examines why Kim Mal-bong chose the Korean War as the backdrop for the novel. Additionally, it ques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two and a half years leading up to the outbreak of the war. The author suggests that Kim Mal-bong's decision to write a reversal fiction may be related to the loss of his son, Young, in the war. Through participation in UNESCO's "Conclusion of Free Artists," the inner workings of Kim Mal-bong are explor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ovel approaches the perspective of Barbusse's reversal fiction.

Meanwhile, previous research on "Homeland of Stars"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the "masses." In other words, there were hardly any instances where attention was paid to the role of the masses, such as Pye-dook-cheel and Pye-dook-soon. The unique setting of the author, who mobilized the masses and their lives through over 60 characters, is n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represented by a few lines of cheering scenes. "Homeland of Stars" points to the Workers' Party as the ruling class that triggered the Korean War and ignored the will of the masses, controlling them from behind as the forces that instigated the war transformed into North Korea

and the totalitarian state of the Soviet Union. As the masses endure hardships in war, the author calls upon souls like stars in the darkness, urging to reveal the homeland of stars in the darkness. Clarity is truth, and truth is God.

Key words: Reversal (反戰) Fiction, Kim Mal-bong's "Homeland of Stars" (Complete Edition), Barbusse's Reversal Novel, "Clarté," Masses, Truth, Soul

논문제출 / 2024.03.15.
논문접수 / 2024.03.25.
게재확정 / 2024.04.07.